

# 전칠계복정으로 치료한 임상적 진행성 폐암 환자 1례

박소정 · 강휘중 · 박지혜 · 조종관 · 유화승\*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

Abstract

## A case report of a clinically diagnosed advanced lung cancer patient after treatment with Gunchilgyebok-Jung

So jung Park, Hwi joong Kang, Ji hye Park, Chong kwan Cho, Hwa seung Yoo\*

*East West Cancer Center, Dunsan Korean Medicine Hospital of Daejeon University*

Received 28 March 2015, revised 19 April 2015, accepted 20 April 2015

**Objective** : This case report presents the effects of Gunchilgyebok-Jung to a patient who was clinically diagnosed with advanced lung cancer.

**Methods** : The study involved a 74-year-old male patient clinically diagnosed with advanced (stage III) lung cancer by chest computed tomography (CT) and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The patient had two masses (11.32 mm and 23.03 mm × 35.34 mm) in the right upper lobe of the lung and in the mediastinum respectively. Gunchilgyebok-Jung commonly used for its anti-tumor and anti-inflammatory effect is composed of *Rhus verniciflua* stokes and *Guizhifuling* wan extracts. We prescribed Gunchilgyebok-Jung at a dosage of 1 g three times a day for 50 days.

**Results** : After the administration of Gunchilgyebok-Jung, a decrease in tumor size to 10.69 mm and 22.71 mm × 34.21 mm on chest CT was observed. A numerical rating scale (NRS) showed an improvement in symptoms from points 7-8 to 3-4.

**Conclusion** : This study suggests that Gunchilgyebok-Jung may have considerable anti-tumor and immunopotentiating activity in lung cancer without any adverse effects.

**Key words** : Lung cancer, Korean medicine, Gunchilgyebok-Jung, Antitumor

## 서론

2013년 보건복지부 암 등록통계에 의한 2011년 국내 암 발생은 218,01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폐암은 21,753건으로 전체 암 중 4위,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은 1위로 알려져 있어 발병률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sup>1)</sup>.

현대의학에서 종양은 세포의 돌연변이 등에 의해 과잉 성장한 것으로 병리학적 검사에 의해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으로 구분되며 그 치료와 예후가 판이하게 다르다<sup>2)</sup>. 반면 한의학에서는 병에 대한 인식을 증후로 보아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았으며 체표와 체내에 생기는 종괴성 질환을 모두 積聚라는 범주의 병증으로 지칭하였다. 積聚의 원인은 六鬱이 풀어지지 않고 三因의 지속적인 자극으로 瘀血과 痰飲 상태로 진행되며, 이렇게 진행된 積聚의 성질은 寒冷한 것으로 보았다<sup>3)</sup>. 치법에 있어서는 병리적 산물로 발생하는 痰飲과 瘀血이 다시 종양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역변의 성격을 가지므로 대부분의 종양치료에서는 痰飲과 瘀血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 선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종양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생한 병이므로 치료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마땅하여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위해 약성을 강하게 하는 것을 경계하고 胃氣가 손상되지 않도록 邪氣와 正氣를 잘 살피서 약을 써야 한다고 지적하였다<sup>4)</sup>.

옛은 한의학에서 주로 瘀血, 積聚, 癥瘕 및 冷心痛에 활용되어 왔으며<sup>5)</sup>, 최근 백혈병 재발 억제효과<sup>6)</sup>, 편평세포암 환자의 생존기간 연장<sup>7)</sup>, 위암 4기에서의 활용<sup>8)</sup>, 전이성 내궁내막 간질육종 환자의 질병안정상태 유지<sup>9)</sup>, 대장암 4기<sup>10)</sup>등에서 암치료의 활용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계지복령환은 張仲景의 『金匱要略』에 최초로 기록된 처방으로 하복부의 瘀血로 인한 痛症을 치료하는 기본 방제로<sup>11)</sup> 항산화<sup>12)13)</sup> 및 항암

<sup>14)15)16)</sup> 효과에 대한 증례보고 및 임상연구 실험 연구 등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종양을 積聚와 瘀血의 결과로 보고 대표적인 祛瘀血 약물인 옷과 계지복령환을 합방하여 만들어진 건칠계복정은 최근 한방항암제로서 임상에서 활용해 왔다. 저자들은 임상적 비소세포성 폐암 3기 진단 후 전신 컨디션 및 고통의 이유로 수술 및 항암치료를 거부한 환자에게 건칠계복정을 중심으로 한 한방단독치료를 통해 종양의 축소 및 삶의 질 개선 사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 증례 보고

### 1. 환자

육 OO, M/74

### 2. 진단일

2014년 3월 8일 ~ 2014년 5월 10일(62일)

### 3. 진단명

(Rule out) Lung cancer with metastatic lymph nodes

### 4. 진단일

2014년 2월 20일

### 5. 가족력

없음

### 6. 현병력

본 환자는 2014년 2월경 전신 피로감이 심하여 검사 결과 chest computed tomography (CT) 와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상에서 right upper lobe에 11.32 mm의 종양과 종격동에 23.03 mm × 35.34 mm 의 악성 종양으로 의심되는 종양발견되어 조직검사 권유받았으나

Table 1. Laboratory Findings

Data (YYYY/M M/DD)	AST (0~31 U/l)	ALT (0~34 U/l)	γ-GTP (7~32U /l)	BUN (0.66~1.09mg/dl)	Creatinine (0.66~1.09mg/dl)	WBC (4.5~11 *103mm <sup>3</sup> )	Monocyte (2~10 %)	Eosinophil (0~5%)	RBC (4~7.2 *106mm <sup>3</sup> )
2014/03/10	67 ↑	54 ↑	140 ↑	7.9	0.89	4.44 ↓	11.9 ↑	11.6 ↑	4.62
2014/03/14	36 ↑	41	125 ↑	6.2 ↓	0.91	5.59	9.7	12.7 ↑	4.43 ↓
2014/03/19	23	20	99 ↑	10.3	0.86	5.51	10.6 ↑	14.8 ↑	4.23 ↓
2014/04/12	32	27	92 ↑	16.2	0.94	5.29	10.6 ↑	7.6 ↑	4.88

AST: Aspartate transmin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γ-GTP: Gamma-glutamic transpeptidase, BUN: Blood urea nitrogen, WBC: White blood cell, RBC: Red blood cell

Table 2. The Composition and Dosage of Gunchilgyebok-Jung

Prescription name	Scientific name	Relative amount (mg)
Gunchilgyebok-Jung	Rhus verniciflua stokes	400
	Cinnamomi Ramulus	20
	Hoelen	20
	Moutan Cortex	20
	Persicae Semes	20
	Paeoniae Radix	20
	Total amount (1 capsule)	500



Fig. 1. PET CT

Rule out lung cancer. It shows possibly, malignant tumor with metastatic LN and small amount of both pleural effusion.

고령의 나이와 전반적 컨디션의 악화로 인해 거부하였다. 이후 피로 및 전신 위약감, 식욕부진, 피부 소양감, 기침, 콧물 등의 증상관리 및 항종양 치료 위해 본원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Fig.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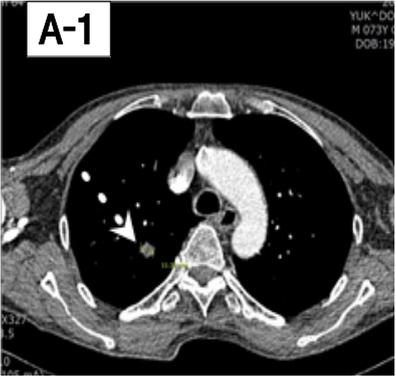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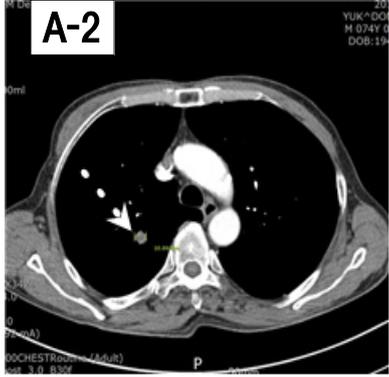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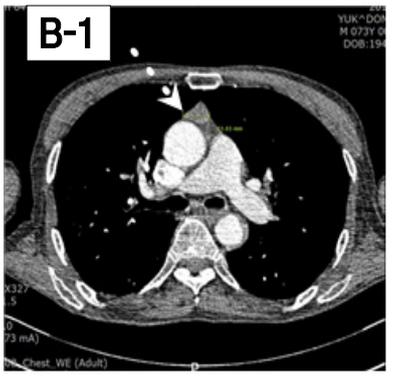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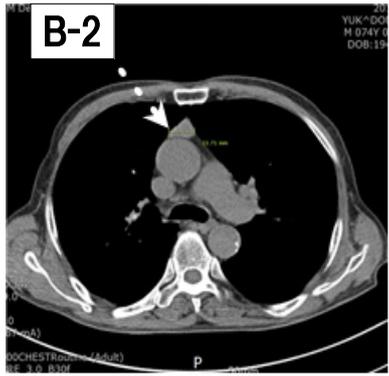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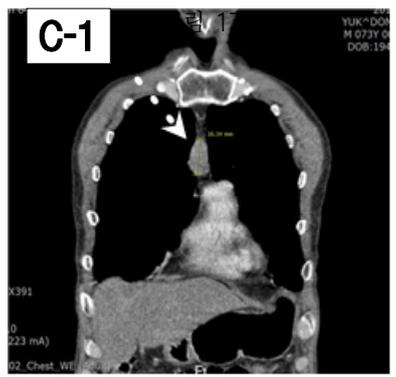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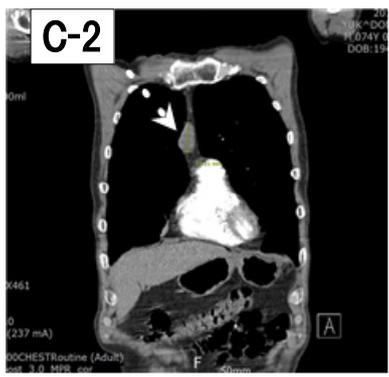
### 7. 주소증 및 변증소견

피로, 전신 위약감, 식욕부진, 피부 소양감, 기침, 가래, 脈細虛, 舌質淡紅, 舌苔白厚, 齒痕, 瘀斑. 辨證(氣虛, 血瘀)

### 8. 임상병리검사 결과

입원당시 liver function test (LFT)에서 상승되었던 간수치 중 aspartate transminase (AST)와

Fig. 2. Change of tumor size on the chest CT

2014/02/10	2014/05/10	Tumor size
 <p><b>A-1</b></p>	 <p><b>A-2</b></p>	<p>11.32mm → 10.69mm</p>
 <p><b>B-1</b></p>	 <p><b>B-2</b></p>	<p>23.03mm → 22.71mm</p>
 <p><b>C-1</b></p>	 <p><b>C-2</b></p>	<p>35.34mm → 34.21mm</p>

Decrease in tumor size on the chest CT. The 11.32 mm and 23.03 mm × 35.34 mm sized masses on the right upper lobe of lung and in the mediastinum decreased 10.69 mm and 22.71 mm × 34.21 mm.

alanine aminotransferase (ALT)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으며, 그 외 gamma-glutamic transpeptidase (γ-GTP) 등 비정상적인 수치들도 처음 입원 시 보다 수치가 호전되어 건칠계복정의 장기간의 사용에도 간기능, 신기능에는 이상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혈액학 검사에서 처음 상승되어 있던 백혈구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으며 백혈구 분포에 있어서도 비정상적으로 상승되었던 monocyte와 eosinophil 수치가 감소되었다. 적혈구의 경우 치료 중간에 수치가 약간 떨어졌으나 이후 정상으로 회복되었다(Table 1).

**9. 진단방사선 결과**

2014년 2월 20일 Chest CT와 PET CT상에서 우폐상엽에서 발견된 11.32 mm의 종양과 중격동의 23.03 mm×35.34 mm의 종양은 2014년 5월 10일에 경과관찰 Chest CT에서 각각 10.69 mm 와 22.71 mm×34.21 mm로 줄어들었다(Fig. 2).

**10. 기타 복용약물**

복용기간 : 2014년 3월 8일 ~ 2014년 3월 13일 (6일간)

Doxofylline 400 mg/Aspirin enteric coated 100 mg / Ranitidine HCl 168 mg / Acetylcysteine 200 mg / Levodroprazine 60 mg / Thiamine HCl 10 mg/ Vitamin B's with C

**11. 치료방법**

- 1) 증상치료를 위한 주치료 약물: 건칠계복정 (Table 2)
- 2) 복용기간 및 용량 : 2014년 3월 20일 ~ 2014년 5월 10일(50일간), 1g씩(2 capsule) 1일 3회 복용
- 3) 침치료 : 합곡, 태충, 중완, 양 천추 1회/일(14일). 이후 통원치료 시 침치료 받지 않음
- 4) 기타 증상 개선 약물 - 가미양위탕(1일), 방풍통성산(5일)

**12. 치료평가**

증상개선(피로, 전신 위약감, 식욕부진, 소양감, 기침, 콧물) 및 혈액검사, 방사선 검사 결과로 평가

**13. 치료경과**

본 환자는 2014년 2월 말 대전 모 병원에서 피로, 전신 위약감 및 기침, 가래로 인해 진료 후 검사 상 우측 폐에 종양이 발견되어 CT 및 PET CT 상에서 폐암 3기 의증으로 진단받았다. 고령의 나이로 수술, 항암 및 조직검사는 거부하였다. 증상치료 및 한방단독 항암치료 위해 2014년 3월 8일부터 2014년 3월 24일까지 입원치료 받았으며, 퇴원 이후 2014년 5월 10일 chest CT 촬영까지 한방단독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환자의 변증결과 피로 및 위약감, 식욕부진, 피부 가려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야간에 심해지고 종양의 존재, 脈細虛, 舌質淡紅, 舌苔白厚, 齒痕, 瘀斑 등이 있어 氣虛와 血瘀를 동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行氣活血과 祛瘀血 효과를 증강하기 위해 건칠계복정을 중심으로 투여하였다. 입원당시의 피로, 전신 위약감, 식욕부진, 소양감은 Numerical rating scale (NRS) 7-8에서 NRS 3-4 정도로 감소하였고 기침, 가래의 증상은 거의 소실되었다. 퇴원 후 지속적인 약물 처치 받았으며, 이후 2014년 5월 10일 chest CT 상에서 종양의 크기가 약간 감소되는 소견을 보였다.

**고찰**

한의학에서는 종양을 積聚로 보았으며, 그 원인은 六鬱이 풀리지 않고, 三因이 계속 영향을 주어 결국 痰飲과 瘀血이 생성되어 積聚가 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積聚를 없애기 위해서는 瘀血약과 痰飲약을 병용해서 사용함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오래된 積聚의 경우 攻法과 補法을 시기에 맞게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되어 있다<sup>4)</sup>. 한의학의 대표적인 瘀血藥이자 최근 그 항암효과가 인정되어 항암보조제 또는 한방 단독 항암제의 가능성이 있는 약물인 옷나무 추출물과 계지복령환으로 구성된 건칠계복정은 임상에서 항종양 및 종양보조제로 최근 종양의 직접치료 및 기타 암에 보조 항암요법으로 사용 중이다. 옷나무 추출물은 성미가 辛溫鹹하고 肝脾胃大小腸으로 歸經하며 瘀血, 積聚, 癥瘕 및 冷心痛 등에 주로 활용되며 痰飲과 瘀血을 동시에 치료하면서도 補성을 가지고 있어 암치료 활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sup>5)</sup>. 실제로 임상에서는 백혈병<sup>6)</sup>, 폐암<sup>7)</sup>, 위암<sup>8)</sup>, 대장암<sup>10)</sup> 등에서 항종양제 또는 항암보조제로서의 효과 및 생존기간 연장의 효과를 주는 케이스가 보고되고 있으며 실험적으로 세포증식억제, 항혈전 및 항산화 작용, 자연고사 유도 작용<sup>17)18)19)</sup>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계지복령환 또한 계지, 복령, 목단피, 작약, 도인으로 구성되어 우수한 항산화 활성작용<sup>12)13)</sup>으로 다양한 질환에 응용되고 있으며 실험적으로 양성종양 및 자궁경부암세포 등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5)</sup>.

본 증례의 74세 남환은 전신 쇠약감이 발생하여 대전 OO 병원에서 검사 중 Chest CT 및 PET 상 임상적으로 진행성 폐암(3기)으로 진단 받았으나 고령 및 체력쇠약으로 인해 조직검사 및 양방 수술 및 항암치료를 거부한 환자이다. 환자 및 보호자가 한방 단독 치료를 원하여 瘀血 및 積聚로 판단하여 폐암 활용할 수 있는 건칠계복정 위주의 치료를 16일간의 입원치료를 포함하여 퇴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받았다. 입원기간동안 환자의 피로, 전신 위약감, 식욕부진, 가려움증은 NRS 7-8에서 NRS 3-4로 호전되었으며 기침, 가래 증상은 거의 소실되어 퇴원하였다. 퇴원 이후에는 침치료 및 뜸치료는 받지 않았으나 건칠계복정은 하루 세 번 꾸준히 복용하였다. 약복용 50일 후에 추적조사한 Chest CT 상에서 종양의 크기가 우폐의 11.32

mm 종양이 10.69 mm로, 종격동의 23.03 mm×35.34 mm의 종양은 22.71 mm×34.21 mm로 약간 감소하여 일정 부분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T가 정확히 동일한 부위를 단면으로 하여 촬영되었다고 하기에는 기술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새로운 전이가 없고 크기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補하면서도 瘀血과 痰飲에 효과가 있는 건칠계복정을 사용한 한의학적 치법은 積聚가 瘀血과 痰飲에 기인한 것과 치료 시기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功과 補의 관계를 잘 살피어 功補兼施해야 한다는 관점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종양의 조직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진단학적으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점과 치료기간이 약 50일간으로 짧았던 점,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지니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1. 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국가승인통계 11744호), 2013
2. 대한병리학회. 병리학. 서울: 고문사;989-9992,2002
3. 박재현, 엄석기, 정현식, 김경석, 윤성우, 최원철. 積聚를 위주로 한 종양의 병인 병기에 관한 소고. 대한암한의학회지 12(1):1-13, 2007
4. 박재현, 문구. 積聚를 위주로 한 종양의 치법에 관한 소고. 대한암한의학회지 13(1):1-11, 2008
5. 송미선, 김윤상, 임은미. 건칠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한방부인과회지 15(1):60-76, 2002
6. 윤성우, 박재우, 김경석, 정현식, 최원철. 건칠

- 추출물(Nexia)의 독성 실험과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환자의 임상증례군 보고. 대한암한의학회지 11(1):1-21, 2006
7. 김은희, 박소정, 최원철, 이수경. 알러젠 제거 옷나무 추출물 투여로 생존기간이 연장된 편평세포폐암 환자 1례. 대한암한의학회지 16(2):35-41, 2011
  8. 김보근, 박상채. 옷나무 전탕추출물 치료를 받은 위암 4기 환자 1례. 대한암한의학회지 18(1):17-22, 2013
  9. 권은미, 이수경, 이상현, 김경석, 윤성우, 최원철, 한중현, 정현식. 알러젠 제거 옷나무 추출물 위주의 한방치료로 관리한 저등급 자궁내막 간질육종 증례보고. 대한암한의학회지 16(2):1-8, 2011
  10. 김보근, 박상채. 옷나무 전탕추출물 한방치료와 항암화학요법을 병용한 대장암 4기 환자 2례. 대한암한의학회지 16(2):63-70, 2011
  11. 남은정, 이연경, 이동녕, 김형준. 계지복령환 제제의 원발성 월경통에 대한 임상적 효과.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5):1364-1368, 2006
  12. Takao Namiki, Hiromi Sato, Yukari Matsumoto, Haruka Kakikura, Koichi Ueno, Atsushi Chino, Hideki Okamoto, Akito Hisanaga, Akiyo Kaneko, Toshiaki Kita, Maki Kihara, Makio Shozu, and Katsutoshi Terasawa. Identification of a Predictive Biomarker for the Beneficial Effect of Keishibukuryogan, a Kampo (Japanese Traditional) Medicine, on Patients with Climacteric Syndrome.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4:1-8, 2014
  13. 서창섭, 김온순, 신현규. LC-MS/MS를 이용한 계지복령환의 동시분석 및 항산화 효능 연구. 생약학회지 45(3):240-248, 2014
  14. 이수경. Effect of the gejjibokryunghwan on human hepatocarcinoma cells. 대한동의생리병리학회지 17(2):568-573, 2003
  15. 황덕상, 조정훈, 장준복, 이경섭. 계지복령환의 Hela cell 증식억제와 사멸효과. 대한암한의학회지 27(1):23-35, 2006
  16. Yao Zhang, Shulan Zhang. Inhibition effect of Guizhi-Fuling-decoction on the invasion of human cervical cancer. Journal of Ethnopharmacology 120(1):25-35, 2008
  17. Kim JH, Shin YC, Ko SG. Integrating Traditional Medicine into Modern Inflammatory Disease Care: Multitargeting by Rhus verniciflua Stokes. Mediators of Inflammation 2014:1-17, 2014
  18. Lee JO, Moon JW, Lee SK, Kim SM, Kim N, Ko SG, Kim HS, Park SH. Rhus verniciflua Extract Modulates Survival of MCF-7 Breast Cancer Cells through the Modulation of AMPK-Pathway. Biol. Pharm. Bull. 37(5):794-801, 2014
  19. 김성학, 김경준. 건칠이 혈관신생관련 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영향.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9(3):1-12, 2006